

재미·별미·의미 '3미' 즐기는 1석 3조 광양전어축제

해상 전어잡이 시연, 전어가요제, 전국초등학생 백일장·사생대회 등 프로그램 풍성

광양시는 제24회 광양전어축제가 재미·별미·의미를 함께 즐기는 '3미(味)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리며, 전어잡기와 전어가우이 체험, 진월전어잡이소리시연 등 전어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개최 이래 처음으로 해상에서 직접 전어를 잡는 '해상 전어잡이 시연'이 13일과 14일, 오후 5시부터 진행돼 관광객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민 누구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전어가요제는 12일 예시를 거쳐 14일 본선 무대에서 초대급 축하공연과 함께 화려하게 펼쳐진다.

가요제 참가 신청은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jang130424@korea.kr), 팩스(061-797-3239), 또는 진월면사무소 총무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전화(☎061-797-4264)로 접수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전국 초등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도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간직해 세상에 알린 정병욱 교수와 윤동주 시인의 우정을 기리는 이번 대회는 심진강과 망덕포구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와 감성을 북돋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접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윤동주 유교 보존 정병욱 가족' 앞 신청부스에서 가능하며, 참가자는 도화지 및 원고지를 배부받아 당일 오후 5시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14일 낮 12시 30분에 열리며, 총 6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 내역은 △최우수상 1명(30만 원) △우수상 3명(각 5만 원)이다.

정병욱 가족, 윤동주 시 정원, 선소기념관, 염생 식물 군락지 등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스탬프를 받아라' 이벤트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

축제장 인근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스탬프를 완성해 본부석 부스에 제출하면, 맨손 전어잡이 1회 체험권 또는 전어가우이 한 접시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광양시립합창단,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황금통사물단, 7090포크뮤직, 매직 저글링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고 화려한 불꽃쇼가 대미를 장식한다.

축제 기간 망덕 먹거리타운 일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주차는 행사장 입구 전어조형물 인근 임시주차장과 진월초등학교 뒤편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망덕포구에서 건져 올린 전어는 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의 빠른 물살 덕분에 탄탄한 육질과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며, "무엇보다



갈슘·미네랄·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어린이의 뼈 성장부터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온 가족의 가을 먹거리"라고 소개했다. 광양신문호 기자



곡성의 맛, 수도권으로! 우수 상품 판촉전

청과, 양곡, 가공식품 등 곡성의 맛 수도권에 적극 홍보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7일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곡성군 우수 상품 판촉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달콤 향긋, 곡성사랑 바지다'라는 이름으로 열리며, 곡성물 입점업체와 지역 농가가 직접 참여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곡성의 대표 농특산물을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촉전에는 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과농협을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12개 업체가 참가한다. 곡성멜론, 유기농 햇쌀, 토란대, 토란 막걸리, 수제 소시지, 조청류, 전통 된장·고추장 등 총 30개 품목이 선보인다.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상품 구성은 곡성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은 청과, 양곡, 가공식품, 홍보관 등 4개 존으로 구성되어 곡성의 맛과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행사 기간에는 백세미, 브레인지, 수제 소시지 등 주요 품목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곡성물 운영 담당자는 "이번 하나로마트 판촉전은 곡성물과 지역 농가 수도권 소비자와 직접 만나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곡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15~28일 소·염소 사육 농가의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종식 이후 첫 실시되는 이번 일제 접종은, 1,157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염소 7만2,000여 마리가 대상이다.

접종은 사육 규모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는데 소 100두 이상 사육 농가는 영암축협에서 백신을 받아 자가 접종해야 한다.

소 50~99두 사육 농가는 영암축협에서 백신을 받은 뒤, 공수의에게 접종해 줄 것

9월은 소·염소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

15~28일까지 1,157농가 7만2,000여 마리 접종... 부작용 신고 당부

을 의뢰하고,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가 읍·면에서 백신을 받아 접종을 지원한다.

염소 300두 이상 사육 농가는 농가가 읍·면에서 백신을 받아 자가 접종하고, 30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가 읍·면에서 백신을 받아 접종을 지원한다.

폐지는 사유기간이 짧고 자체 접종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일제 접종 대상

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 가축이 폐사·유산할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면 보상 대상으로 접수된다.

영암군은 백신 접종 이후 폐사 가축이나 유산 태아가 발생하면 즉시 동물방역팀(061-470-2159, 2163, 2402, 2040, 204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접종 4주 후부터 농가별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해 접종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등 기준치에 미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4주 간격으로 재검사, 추가 과태료 부과 등이 진행된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구제역 종식 이후 첫 일제접종에 농가의 철저한 참여를 당부한다. 아울러 농장 차단 방역과 소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함평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10월 17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최대 36개월간 월 25만원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사이 함평군에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등 정부기금을 활용한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면서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가

정의 경우 미성년자가 2명 이상(1명은 만 12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신청은 불가하다.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함평소식)고시공고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인구경제과 청년지원팀(061-320-1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군수는 "앞으로도 관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다각도에서 지원해 나가겠다"며 "해당 가정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영광군, 군민의 날 행사서 인구정책 홍보부스 운영 성료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홍보, 설문조사 통해 군민 의견 수렴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린 '제49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인구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인구정책을 알리고, 인구문제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홍보부스를 찾은 군민들에게 ▲신혼부부 ▲임신·출산 ▲아동 양육 ▲청년 정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알기 쉽게 안내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집중 홍보하며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행사를 찾은 군민과 방문객들은 홍보 부스를 방문하여 정책 안내를 받고, 인구문제 인식개선 설문조사에도 참여했다. 군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수립된 군민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 밀착형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장흥군, '천년고찰 보림사'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방문, 진우 큰스님과 관계자 환담 가져

장흥군은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과 관계자들 만나 보림사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장흥군은 보림사와 주변 경관 개발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회복, 보림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불교계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보림사의 역사적·문화적 위상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보림사는 통일신라시대 보조국사 체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동양3대 보림사 중 하나로 우리나라 선종 불교의 중심 도량이다.

현재 국보 2점, 보물 10점, 도지정유형유산 13건, 향토문화유산 4건을 보유하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한때는 20여채의 건물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었으나 6.25 전쟁 당시 불

에 타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매년 국가 유산청과 장흥군의 중요문화유산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복원과 보존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대적광전 및 대웅전 등 다수의 건축물 복원과 남북삼층석탑 및 철조비로자나불 보존처리사업 등을 완료하였다.

장흥군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보림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합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보림사는 우리나라 구산선문의 대표적인 절이자 최초의 선종이 정착한 사찰이다. 보림사를 참선과 명상의 중심 사찰로 만들어 문화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인가...
 기념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풍만한 것...
 고유의 색을 가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언더 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안된다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림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리고 싶은...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나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느껴진다.
 그래서
 있는 건데...
 이 둘
 우어도 보는 것.
 내가 기억할 것.
 잠시...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